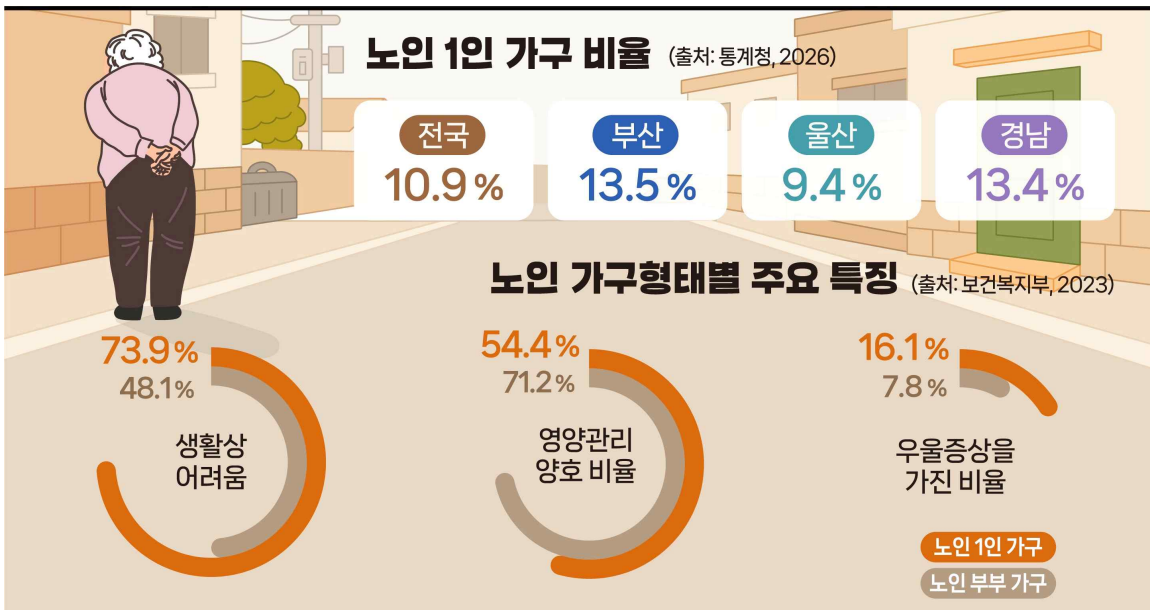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2026. 11. Vol. 50

지방의정 뉴스레터는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이슈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메일링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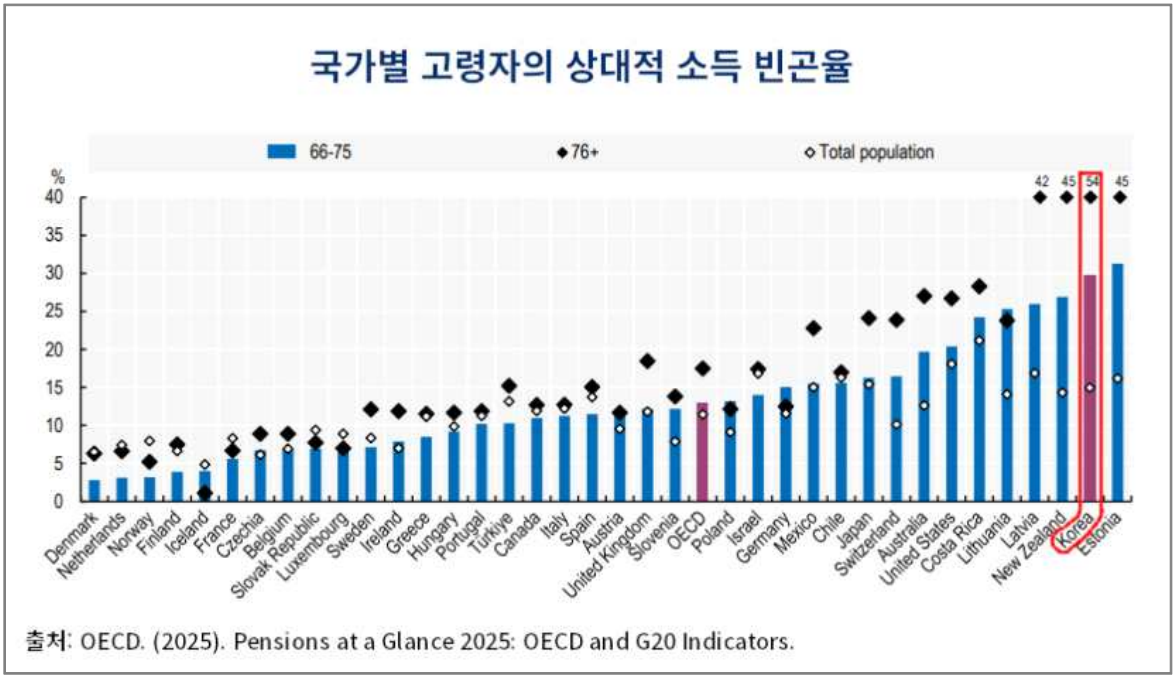
혼자 사는 노년, 괜찮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7%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노인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13.5%로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13.4%로 부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가구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202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출처: OECD. (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OECD and G20 Indicators.

특히 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로 54.0%에 달해 고령일수록 빈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년층 전반이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가운데, 가구 형태에 따라서도 생활 여건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노인 1인 가구는 다른 형태의 노인 가구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인 부부 가구가 48.1%인데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73.9%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노인 부부 가구는 71.2%였지만 노인 1인 가구는 54.4%에 그쳤습니다. 우울 증상 역시 노인 부부 가구는 7.8%인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16.1%로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노인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식생활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지방의정 뉴스레터〉에서는 노인 1인 가구와 관련된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정발언,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정책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경상남도 자치법규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관련 조례 더보기

[부·울·경 지방의회 주요 발언]

□ 황석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동구2 | 행정문화위원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공공의료·돌봄 인프라와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략)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의 건강, 주거, 요양, 돌봄, 일상행활을 연계해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중략) 노인 돌봄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며, 이웃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해 고독사, 치매 노인 실종, 우울감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를 동반한 노인,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벗어난 틈새계층 노인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이웃 간 연결망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시스템 또한 함께 추진해, 24시간 돌봄과 응급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0회(1차) 본회의 (2025.07.15.)

□ 이양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 마 선거구 |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될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와 기관 사이에서 누락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가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제공되는 시스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돌봄 사각지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안전망입니다. (중략) 남구의 수요 분석 결과,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남구형 민관 통합돌봄 협력 모델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74회(1차) 본회의 (2025.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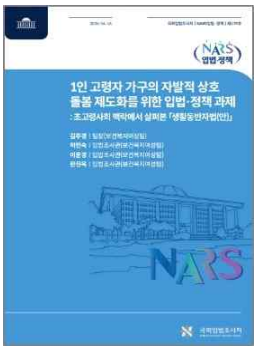
□ 윤성관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라 선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매 가족을 홀로 돌보던 보호자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면, 남겨진 어르신의 돌봄은 누가 맡게 될까요? 혼자 사는 50대 시민이 사고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는데,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필요한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중략) 지난 9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 통합돌봄 운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주는 2019년 서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이후, 2023년부터는 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나 조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통합돌봄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전담조직과 전달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략) 이를 위해 진주시도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지원결정, 의료와 복지의 연계까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조정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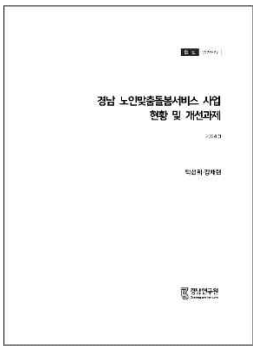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제277회 (2026.10.26.)

[국회부산도서관 추천 정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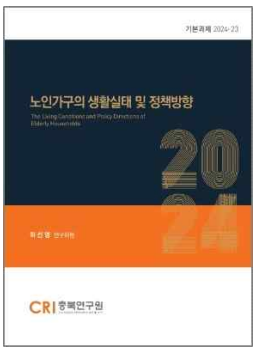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6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및 개선과제

경남연구원, 2024



노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충북연구원(CRI),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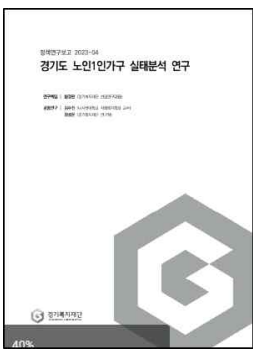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 : 노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 2024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한국노동연구원(KLI), 2023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2023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해양·수산과 함께하다」 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 정미영)은 11월 21일(토) 이용자들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과 문화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행사 「국회부산도서관, 해양·수산과 함께하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 다섯 곳이 함께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부산항 근대화의 첫 관문, 부산항 제1부두'를 주제로 한 북토크와 전시를 비롯해 해양생태계 보호 퀴즈·체험, 바다 마술쇼와 캐릭터 퍼포먼스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국회부산도서관, 「책 밖으로! 법과 민주주의 탐험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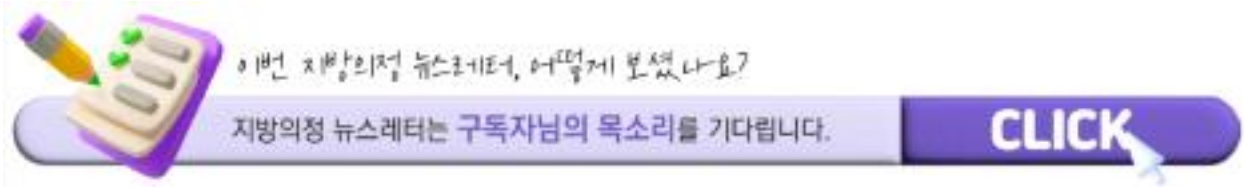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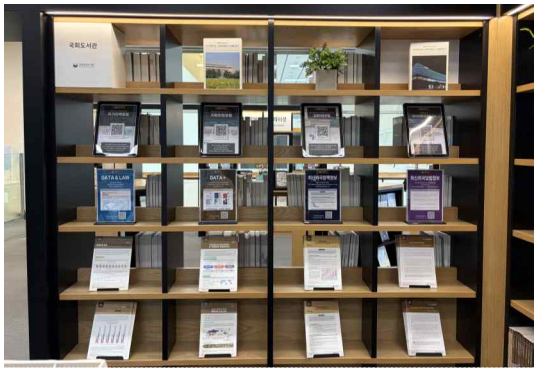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은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현장체험과 연계한 「책 밖으로! 법과 민주주의 탐험대」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1회차는 현직 변호사와 함께 모의법정 체험, 2회차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모의투표 체험, 3회차는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여 헌법배움터 등을 체험합니다.

• 국회부산도서관, 뇌과학자 정재승교수 초청 강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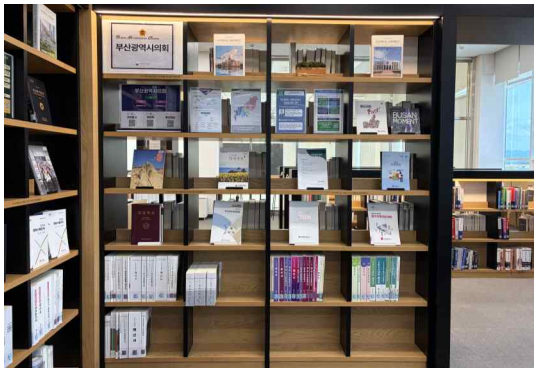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은 11월 21일(토) 오후 2시 영상세미나실에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를 초청해 「읽기의 뇌과학: AI 시대에도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독서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AI 시대에도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 소속 기관별 발간물을 제공하는 **국회 발간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지방의회 특화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부·울·경 지방의회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정보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051-608-8150

의회정보 북큐레이션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Tel. 051-608-8072 | nabl_newsletter@nanet.go.kr